

문화 및 교육 부문 간 협력을 통한 무형문화유산교육: 아태지역 학교교육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박원모*

요약

최근 유네스코는 문화와 교육 부문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학습기관과 공동체 간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문화와 교육 간 시너지를 토대로 학습성과와 문화적 다양성 증진에 대한 이점을 입증하는 새로운 학습법과 관련한 시범사업 및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유네스코의 정책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제12차 회의(제주, 2017)에서 ‘무형문화유산과 교육’을 실행 우선 과제로 채택하였다. 위원회는 ‘무형문화유산과 교육’을 위한 역량 강화에 우선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결정문을 통해 형식 및 비형식 교육을 통한 전승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유네스코 교육 프로그램 및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환영한다고 화답하였다. 유네스코의 조직 내 부문 간 협력이라는 작금의 기조하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유네스코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ICHCAP)는 해당 협약이 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 교육 부문

* 이 논문은 2022년 5월 13일에 개최된 무형유산학회 2022 춘계학술대회 기획 세션 ‘무형유산의 전승과 교육’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협력네트워크실장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겸임교수, pweonmo@hanmail.net

과의 협력을 위하여 2019년부터 유네스코방콕사무소 및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 등과 협력하며 아태지역 국가들과 함께 학교에서의 무형문화유산교육 증진을 위한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과 함께 하는 교수학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그동안 아태지역에서 실시되었던 무형문화유산 학교교육 협력사업에 대한 일련의 추진과정과 수행내용을 소개함으로써 교실에서의 무형문화유산교육에 대한 확장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시범사업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교사, 학교 관리자, 정책결정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 학교에서의 무형문화유산교육을 증진하기 위한 현안 과제들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 무형문화유산, 형식·비형식교육, 통합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무형문화유산교육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극심한 빈곤 문제, 각종 불평등의 심화, 양질의 교육 기회의 제한, 기후변화의 영향, 정보기술의 격차, 문화유산에 대한 각종 위협 등 수많은 글로벌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최근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 내 여러 부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통합적 접근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의 시한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유네스코는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각종 격차 문제에 맞서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고 유네스코의 임무인 평화 구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증진을 위해 조직의 변혁적 역할을 이행하고 있다(UNESCO, 2022a: 9-10).

특히, 유네스코는 문화 및 교육 부문 간의 협력을 강화해 회원국들에게 문화를 교육정책이나 프로그램에 통합하는데 필요한 정책 자문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자문과 지원은 형식 및 비형식 교육(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기술 직업교육 및 훈련(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분야에서 학습자의 관점과 접근방식, 교육법 등을 확장하는 방식을 통해 교육의 질과 해당 교육의 적합성 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유네스코는 문화 관련 협약 및 권고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문화기관과 박물관이 지니고 있는 비형식 교육과 평생학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접근방식은 예술교육과 문화유산을 다양한 형식이나 협력을 통해 통합하는 방식을 더욱 포괄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으로 하여금 학습기관과 공동체 간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문화와 교육 간 시너지를 토대로 학습성과와 문화적 다양성 증진에 대한 이점을 입증하는 새로운 학습법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UNESCO, 2022b: 219-220).

이러한 유네스코의 조직 혁신을 위한 선도적 조치의 일환으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2017년에 제주에서 개최된 제12차 회의에서 ‘무형문화유산과 교육’을 실행 우선 과제로 채택하였다. 협약 제2조 3항과 제14조와 관련(UNESCO, 2022c: 6)하여,¹⁾ 무형문화

1) 교육은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제2조 3항에서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형식 및 비형식 교육’을 열거하고 있다. 특히 협약은 국내적 보호 이행과 관련한 제14조에서 협약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일반대중, 특히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인식 제고 및 정보 프로그램’, ‘관련 공동체 및 집단 내의 특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무형문화

유산 보호 조치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해 온 협약 사무국은 정부간위원회 제11차 회의 부대행사로 개최한 라운드테이블 미팅²⁾ 이후, 2017년 5월 유네스코 본부에서 교육 부문과 교육 관련 유네스코 카테고리1 연구소 및 센터³⁾의 대표들이 모여 무형문화유산과 교육의 통합에 대해 논의(UNESCO, 2017a)하였다.⁴⁾ 협약 사무국은 이러한 일련의 논의를 기반으로 정부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무형문화유산과 교육’을

유산 보호를 위한 역량 강화 활동으로 특별히 관리 및 과학적 연구 등’, ‘지식 전수의 비공식적 방법’ 등을 통해서 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인식, 존중 및 고양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 2)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정부간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는 29일 부대행사로 ‘교육에서 무형문화유산과 함께 하는 학습(Learning wit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education)’이라고 하는 주제의 라운드테이블 미팅이 개최되었다. 해당 회의에서는 교사와 교육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논의되었고, 어떻게 무형문화유산이 양질의 교육을 성취하기 위한 교수학습 자료가 될 수 있는지 탐구되었다. 유네스코 홈페이지 <https://ich.unesco.org/en/side-events-00899>(2022.4.12. 접속).
- 3) 유네스코는 직속의 전문기관으로 9개의 카테고리1 연구소 및 센터를 두고 있다. 이 중 국제교육계획연구소(IIEP), 국제교육청(IBE), 평생학습연구소(UIL), 정보기술교육연구소(IITE), 국제아프리카역량강화연구소(IICBA), 국제라틴아메리카카리브고등교육연구소(IESALC), 마하트마간디평화지속가능발전교육연구소(MGIEP) 등 7개가 교육 관련 카테고리1 연구소 및 센터이다.
- 4) 2017년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과는 문화 및 교육 부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무형문화유산을 통합하기: 교육 연구소 및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부문 간 회의’를 개최하였다. 해당 회의의 목적은 무형문화유산과 교육 사이의 접점에 대한 공통된 개념적 이해를 확립하고, 무형문화유산을 교육과 통합하는 것과 관련한 이전 및 진행 중인 구체적인 경험을 공유하며, SDG4 모니터링과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논의하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전략적 행동과 협력 분야를 정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위한 역량 강화에 우선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형식 및 비형식 교육을 통한 전승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유네스코 교육 프로그램 및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환영한다고 화답하였다(UNESCO, 2017b: 6, 8). 또한, 제12차 정부간위원회는 사무국이 제안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 무형문화유산기금의 우선 사용 순위 내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역량 강화’와 ‘형식 및 비형식 교육에서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분담금을 수용하고 사무국이 이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UNESCO, 2017c: 4, 6).

이상과 같은 유네스코의 조직 내 부문 간 협력이라는 작금의 기초 하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유네스코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ICHCAP)⁵⁾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우선 과제로 하는 교육 부문과의 협력을 위하여 2019년부터 유네스코방콕사무소 및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 등과 협력하며 아태지역 국가들과 함께 학교에서의 무형문화유산교육 증진을 위한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과 함께 하는 교수학습’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서 2019-2020년에는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교수학습 설문조사’ 및 ‘무형문화유산교육 강화를 위한 아태지역 회의’가 개최되었고, 2020-2021년에는 무형문화유산교육 교사용 지도서 초안이 작성되고 무형문화유산 학교교육 시범사업이 운영되었다. 그리고 2021-2022년에는 『지도서: 아태지역 교실에 살아있는 유산 가져오기』가 발간되

5) 정식 명칭은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유산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로 약칭해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라고 쓰고 있다.

었고 애니메이션 시리즈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과 함께 하는 교수학습’과 교사용 공개강좌 ‘아태지역 교실에 살아있는 유산 가져오기’가 개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실시되었던 무형문화유산 학교교육 협력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일련의 추진과정과 수행내용을 소개함으로써 교실에서의 무형문화유산교육에 대한 확대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그에 앞서 먼저 이전에 유네스코방콕사무소가 일본 정부의 신탁기금을 받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했던 ‘지속가능발전교육과 무형문화유산 통합 학습에 대한 시범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사업은 이후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과 함께 하는 교수학습’ 프로젝트 진행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무형문화유산교육과 관련한 시범사업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교사, 학교 관리자, 정책결정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 학교에서의 무형문화유산교육을 증진하기 위한 당면과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무형문화유산교육을 위한 시범사업과 교사용 지침서 개발

1. 지속가능발전교육과 무형문화유산 통합 학습 시범사업

1) 시범사업의 개요

국제사회는 2002년 유엔총회에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10년을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 DESD)’으로 지정하였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선도기관으로서 유네스코는 2014년에 더욱 실천적인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위한 글로벌 액션 프로그램(Global Action Programme, 2014-2019: GAP)’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이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내용, 절차 등에 대한 학습과정인 동시에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의지를 길러주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을 의미한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n.d.).

유엔의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의 종료와 지속가능발전교육 글로벌 액션 프로그램의 시작의 접점에서 유네스코방콕사무소는 일본 정부의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2013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기본 원칙으로서 문화적 다양성의 중심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무형문화유산 통합교육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해당 사업은 학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원칙과 무형문화유산의 종목을 교수학습에 통합하기 위한 교사들의 인식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획되었다. 특히 중등학교 수준의 학습 환경에 무형문화유산을 통합하는 혁신적인 접근방식을 고안해 내고자 하였다.

사업명 ‘아태지역 교육자 지속가능발전교육 강화와 무형문화유산 진흥’⁶⁾으로 진행된 해당 프로그램은 유네스코방콕사무소의 주도하에 유네스코 이슬라마바드, 아피아, 타슈켄트 및 하노이사무소 등 유네스코의 지역사무소들이 실행기관으로 참여하였고 파키스탄, 팔라우,

6) 해당 사업의 영문명은 ‘Promo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educators to reinforce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Asia Pacific Region’이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이 시범사업 대상 국가로 선정되었다. 대상 국가들은 아태지역의 다양한 사회, 문화, 환경을 대표하도록 선정되었다. 해당 시범사업에는 교사 교육자, 교사, 학생,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커리큘럼 개발자와 정책 입안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내용을 해당 지역의 지식과 지혜를 제공하는 데에 지역 노인이나 문화 실무자와 같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기여와 참여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특별활동뿐만 아니라 수업 내 교수학습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에 통합하였다. 학생들이 지역 문화 및 환경과 다시 연결함으로써 학습 동기를 부여받게 하였다(UNESCO, 2015a).

2) 시범사업의 내용

유네스코방콕사무소는 먼저 무형문화유산을 정규 교육에 통합하는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몇 가지 연구와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공모 과정을 통해 ‘페낭예술교육협회(Penang Arts Education Society)’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유네스코의 각 지역사무소는 각국의 실무팀을 구성하였다. 각국 실무팀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파키스탄은 국가유산통합부, 문화유산 관련 NGO THAAP의 컨설턴트 및 자문 서비스, 팔라우는 교육부 팔라우연구과,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 문화부 국립예술문화원, 교육부 영적도덕교육청, 그리고 베트남은 민족학박물관, 교육부 중등교육과 등이 참여하였다(UNESCO, 2015a: 3).

2013년 6월 5일부터 7일까지 방콕에서 첫 번째 지역회의가 개최되었다. 해당 회의의 목적은 페낭예술교육협회가 국가기반 지침을 개

발하기 위해 준비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개선하는 것이었다. 파키스탄, 팔라우,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의 대표들은 무형문화유산을 통합한 자국의 교육정책 및 활동과 관련된 예비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국내 시범사업을 위한 각국의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실행하는 것으로 하였다(UNESCO, 2015a: 4).

첫 번째 지역회의 이후 4개국의 실무팀은 국가별로 자국에 응용하기 위한 지침 및 샘플 자료를 개발하고, 교사들에 대한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시범수업을 수행하는 등 각자의 방법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파키스탄은 3개 지방 9개 학교에서 6-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수업을 진행하였으며 교사용 지침서와 샘플 수업계획서를 참여 교사들에게 배포하였다. 팔라우는 3개 학교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샘플 수업계획서와 참고도서를 각 학교에 배포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타슈켄트에 있는 두 개 학교에서 시범수업을 진행하였다. 1개교는 유네스코협동학교이고 다른 1개교는 일반공립학교였다. 또한, 1개교는 다양한 민족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1개교는 동일 민족으로 구성된 교실이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전통 민속 놀이와 전통 민요를 소재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교사용 안내서와 학생용 교재를 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은 하노이와 70%의 무엥족 학생들로 구성된 호아빈에 위치한 도시 2개 학교에서 시범수업을 진행하였으며 교사용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UNESCO, 2015a: 5-6; 22).

2014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다시 방콕에서 두 번째 지역회의가

개최되었다. 해당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자국의 경험들을 발표하고 다른 국가와 서로 정보 및 조언을 교환하는 기회를 가졌다. 4개 국가의 시범사업 결과 3개국의 국가 지침서가 작성되었고, 교사용 안내서 2권 및 학생용 교재 2권을 포함한 교육자료가 제작되었으며, 114개의 샘플 수업계획서가 개발되었다(UNESCO, 2015a: 11). 이상의 2차 회의에서 제시되고 논의된 각국의 주요 결과들은 아태지역 교사 지침서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해당 교사지침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서 각국의 실무팀은 자국의 주요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특히 정책결정자들이 사업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교육과정에서의 방법론의 통합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파트너들은 또한 인식을 제고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파키스탄은 2014년 12월 8일과 9일 지방정부 문화 및 교육 관련 부서의 정책결정자들이 참여한 공조회의를 조직하였다. 팔라우는 시범사업에서 개발된 수업계획서를 2014년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연례 교육 회의에서 제시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제작된 교재를 정규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를 하였다. 그리고 베트남은 교육부가 해당 시범사업을 매우 지지하여 지침서와 자료들을 자국의 교육 플랫폼에 통합하도록 하였다(UNESCO, 2015a: 8-9). 그리고 유네스코도 관련한 다양한 국제 및 지역회의 등에서 해당 시범사업을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꾸리에(ICH Courier)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해당 시범사업의 경험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7) 아태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진흥을 위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2009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계간지로 전 세계 190여 개국에 배포되고 있다.

홍보하였다. 그리고 해당 시범사업의 결과물들을 방콕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2.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무형유산 학습: 아태지역 교사지침서

유네스코방콕사무소는 2년여에 걸쳐 진행된 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발전교육 간 통합을 위한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무형유산 학습’이라고 하는 제목의 아태지역 교사용 지침서를 발간하였다(UNESCO, 2015b).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 해당 지침서는 제1장 ‘핵심 개념의 이해’에서 먼저 무형문화유산,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교육 등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특히 지침서는 학습자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무형문화



[그림 1]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무형유산 학습:
아태지역 교사지침서

유산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그들의 생활과 관련한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측면과 그것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시너지를 이해할 수 있다(UNESCO, 2015b: 18-19)고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기존 교과목 안에서 하나의 주제로서 무형문화유산을 학습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제2장은 ‘무형문화유산 종목과 지속가능발전교육 학습원칙의 결합’으로 교실 현장에서 무형문화유산 종목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원칙을 결합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치기반의 지속가능발전교육과 맥락기반의 무형문화유산을 통합하여 학문기반의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교과 학습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침서는 교과 학습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유산 연행과 관련된 학습을 사회, 역사, 보건과 연계된 사회적 주제와 과학, 지리와 연계된 환경적 주제 및 상업, 경제와 연계된 경제적 주제로 나누어 다루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삼각검증법이라고 하여 수업을 계획할 때 형식적 교과 주제와 지식, 무형문화유산의 연행,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원칙, 이 세 가지 구성요소가 꼭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UNESCO, 2015b: 28-29).

제3장은 ‘무형문화유산 종목과 지속가능발전교육 원칙을 형식교육에 통합’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준비, 설계, 그리고 실행’ 등과 관련한 단계별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다양한 부문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관계 부처의 관리자, 문화기관의 전문가를 비롯하여 지역 공동체의 조력자 등 다양한 협력자를 섭외하고 참여를 유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무형문화유산 정보 자료의 수집 및 연구로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특정 유형의 유

산을 연구할 때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요소를 정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 구조화를 위한 몇 가지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는 교사 역량 강화로 전통적인 교수 방법이 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통합에 부적절하므로 교사들은 활동적인 교수학습 방법 및 교실과 공동체의 관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네 번째는 학생들이 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성을 이해하고 학습하도록 촉진하는 교육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교육과정의 구조화와 관련하여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3가지 접근법(뱅크스, 뱅크스 편, 2011: 290-306)⁸⁾으로, 첫째 교과목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생들이 문화와 맥락적 관점에서 교과목 내용을 이해하고 또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변혁적 접근방식, 둘째 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요소들, 예를 들어 전통놀이, 체육과 음악,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은 사회과목으로 분리하여 한 과목 내에서 하나의 주제로 가르치거나, 범교과 주제 학습으로 과학, 지리, 역사 수업의 한 부분으로 전통놀이나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등 무형문화유산의 종목을 소개하는 기여식 접근방식, 셋째 현장 견학이나 프로젝트 수행과 같은 공동 교육과정이나 전체 학교 프로젝트 또는 학교행사와 같은 과외활동 등을 추가하는 부가적 접근방식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교안개발과 관련한 사항으로 수업설계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 1단계는

8) 제임스 A. 뱅크스는 「다문화적 교육과정의 접근법」에서 다문화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접근법으로 수준에 따라 기여적 접근법, 부가적 접근법, 변혁적 접근법, 사회적 행동 접근법 등 4가지 접근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서에는 사회적 행동 접근법이 빠져있다.

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의 선별, 2단계는 교과목과 무형문화유산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사이의 관계 검토, 3단계는 학습 목표의 수립, 4단계는 흥미로운 교육방법 선택, 5단계는 학습활동과 교수학습 자료개발, 6단계는 개발된 교안의 적용, 평가 및 정교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UNESCO, 2015b: 31-56).

제4장은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수집하고 공유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당 사업에 대한 가시성 제고와 관련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다.

마지막 제5장은 교사들을 위한 참고자료로 각국의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교사 훈련 모듈 예제로 무형문화유산 관련 기록 사례 등과 함께, 화학 수업과 민속 음악 및 리듬의 통합(파키스탄, 8학년), 트영족 전통음악과 물리 수업의 통합(베트남, 7학년), 전통 노래를 활용한 음악교육(우즈베키스탄, 6학년), 역사수업과 전통 서예의 통합(파키스탄, 8학년), 전통 자개 수공예와 생물 수업의 통합(베트남, 7학년), 도로 규칙 수업을 통한 지역사회 내의 존중의 개념 이해(팔라우, 6학년) 등의 교안 예제 등을 첨부하고 있다(UNESCO, 2015b: 57-88).

Ⅲ. 무형문화유산 교수학습 설문조사 및 교육 지도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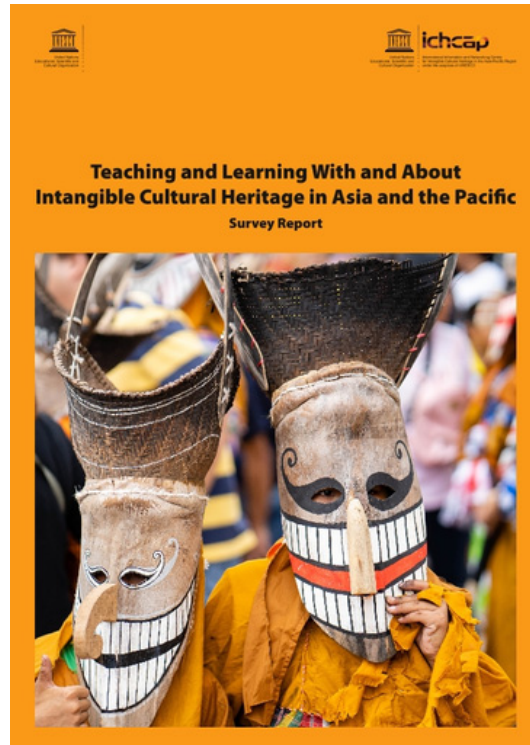
1.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교수학습 설문조사

상기 무형문화유산교육 시범사업을 통해서 무형문화유산을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하는 것이 수업의 질을 보장하고 학습 결과를 향상

시키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학적 접근법을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형문화유산의 통합 학습은 또한 해당 지역의 관행과 맥락으로 표준화된 교과서의 지식을 풍부하게 하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종종 잊혀져 가는 지역 유산과 그것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였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무형문화유산 학습: 아태지역 교사용 지침서’는 교사 교육자 및 교사들에게 무형문화유산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원칙과 함께 교육과정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해당 지침서는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형문화유산의 교수학습이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 수학, 과학, 음악, 사회 등과 같은 여러 교과와 어떻게 창조적으로 통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예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성공적인 시범사업 이후 유네스코방콕사무소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이미 문서화 된 상기 지침서의 내용 이외에도 아태지역 각종 학교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에 무형문화유산을 통합하는 다른 여러 접근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아태지역 학교들 사이에 무형문화유산교육의 개념을 홍보하는 한편, 과외 프로그램을 포함한 교육과정에 무형문화유산을 통합하는 기존 경험과 우수 사례를 수집하고, 학교에서 무형문화유산을 통합하는 데 있어 성공 요인과 당면 과제 파악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하기로 하였다(UNESCO, 2019).

조사팀은 두 개의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해당 설문지는 구글 플랫폼을 사용하여 관리되었다. 한 설문지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개인 교수 경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그림 2] 설문조사 보고서: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과 함께 하는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교수학습

다른 설문지는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정책 및 훈련과 같은 학교 전반의 제도적 측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설문지는 ① 학교에 대한 정보, ② 응답자에 대한 정보, ③ 교육 내 무형문화유산 활용 관련 사항(과목, 빈도, 교재-지역사회와의 협업 포함), ④ 정책적 내용 관련 사항(학교 조사에 한정), ⑤ 필요한 지원 관련 사항, ⑥ 사례 조사를 위한 세부 정보(선택 사항) 등 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UNESCO and ICHCAP, 2021: 12-13).

설문조사는 2019년 7월 중순부터 4개월간 진행되었고 아태지역

21개 국가⁹⁾ 유네스코협동학교네트워크(UNESCO Associated Schools Network, ASPnet) 소속 학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총 777건의 답변이 접수되었다. 이 중 두 건의 응답은 국가와 연결될 수 없어서 폐기되었다. 최종적으로 총 775건의 설문지가 수집·분석되었다. 이 중 170건은 유네스코협동학교들로부터 접수되었다. 처음 의도와는 달리 유네스코협동학교 이외의 학교들이 설문조사에 많이 참여하였다. 전체 응답 중 71%는 교사용 설문지에 대한 응답이었고 29%는 학교 관리사용 설문지에 대한 응답이었다(UNESCO and ICHCAP, 2021: 19).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교사 및 학교 관리자들은 그들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으며 그것이 학습 과정에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수혜를 인정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다양한 프로파일은 무형문화유산이 다양한 분야와 배경의 교육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았다.¹⁰⁾ 응답자들은 무형문화유산을 학교교육에 통합하기 위한 여러 접근법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러한 접근법을 통하여 무형문화유산이 수학 및 자연과학과 같이 유산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이는 과목들을 포함한 대부분 과

9)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가는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중국, 쿡아일랜드,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및 베트남으로 총 21개 국가의 초·중등학교가 참여하였다. 특히, 영어 응답이 자유롭지 못한 학교 관리자 및 교사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 설문지는 방글라데시어, 미얀마어, 중국어, 힌디어, 일본어, 한국어, 몽골어, 네팔어, 신할리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11개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되었다. 해당 설문지는 각국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번역되었다. 따라서 설문에 참석한 모든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지는 않았다.

10) 응답자의 14%만이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에 익숙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무형문화유산은 과외활동뿐만 아니라 정규 수업이나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총체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많은 유형의 무형문화유산이 학교 교육과정에 활용되고 있었으며, 특히 축제와 공연예술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형문화유산 범주였다. 무형문화유산을 교육에 통합하는 수업이 초등 및 중등, 농촌 및 도시,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있었는데 무형문화유산교육이라고 하는 해당 접근법을 홍보하기에 더 적합한 환경은 초등학교였다. 많은 학교와 교육자들이 현재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계는 교육자들에게 무형문화유산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교육 활동을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수업에 무형문화유산을 사용하는 그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압도적으로 많은 학교 관리자들이 교사들의 교수학습에 무형문화유산을 통합하는 것을 기꺼이 지지하였다. 또한, 많은 경우 국가, 지역 및 학교 수준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적 내용이 마련되어 있었다(UNESCO and ICHCAP, 2021: 60-61).

해당 조사는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먼저 응답자들이 무형문화유산을 이미 학교와 교육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체계적이거나 구조적인 방식보다는 불규칙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지적하였다. 즉, 무형문화유산의 교육학적 잠재력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을 가르칠 시간이 부족하고 무형문화유산을 가르칠 자신이 없다는 교사들의 응답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설문 조사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연계되어 있지만, 일부 장벽이 존재하며 무형문화유산교육의 통합에 대한 내실 있는

협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더욱이, 학교 관리자들이 학교가 이러한 교육 접근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고 있다. 마지막은 해당 조사의 방법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왜 더 많은 교사와 교육자들이 해당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지 불분명하다며 향후 조사에서 응답률을 개선하기 위해 응답 부족 이유를 탐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UNESCO and ICHCAP, 2021: 62).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는 무형문화유산교육을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는 학교에서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보공유 촉진, 둘째는 문화와 교육을 연계하는 정책 개발, 셋째는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교재 및 역량 강화, 넷째는 연행 공동체 및 네트워크 개발 또는 강화, 다섯째는 문화 및 교육 간 총합적 연계 개발을 위한 작업, 여섯째는 교육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작업 등을 권고하고 있다(UNESCO and ICHCAP, 2021: 63-65).

2. 무형문화유산교육 강화를 위한 아태지역 회의

상기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네스코방콕사무소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아태지역의 무형문화유산교육 현황 및 도전과제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화된 사례 수집과 시범사업 개발을 위하여 2019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아태지역 15개국으로부터 무형문화유산 및 교육 분야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¹¹⁾ ‘무형문화유산교육 강화를 위한 아태지역 회

의(Regional Meeting for Strengthening the Use of ICH in Education in the Asia-Pacific)’를 개최하였다.

해당 회의에서는 먼저 양질의 교육에 무형문화유산이 기여를 하며 교육이 무형문화유산 전승을 도울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과 교육의 통합 노력에 대해서 소개하고 앞에서 설명한 무형문화유산교육 관련 설문조사의 진행 상황과 중간결과의 내용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국립민속박물관 다문화꾸러미를 비롯한 몽골의 문화유산 꾸러미(Heritage in Box), 무형문화유산을 중학교 자연과학 교과목에 통합한 베트남의 사례,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관련 초등교과과정 분석, 국립무형유산원의 청소년 대상 무형문화유산교육 운영, 필리핀의 살아있는 전통학교(Schools of Living Traditions), 키르기스스탄의 무형문화유산과 함께하는 초중등학교 교육학습 등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정책계획팀, 기술자원팀, 역량개발팀 등의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의 무형문화유산교육 통합 추진과 관련한 도전 과제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 토의하였다. 정책계획팀은 관계자들이 네트워크 할 수 있는 플랫폼의 개발과 정부 간 논의의 필요를 제안하였고, 기술자원팀은 학교현장에 보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을 우선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역량개발팀은 교사들의 무형문화유산 관련 지식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교원연수 강화 및 현장학습 확대를 권고하였다.

11) 해당 회의에는 몽골,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네팔, 태국, 동티모르, 일본, 부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미얀마, 중국, 한국 등 아태지역 15개국의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와 유네스코협동학교네트워크 포컬포인트 등이 함께 참석하였다.

2019 동아시아 유네스코국가위원회 회의¹²⁾와 연계해서 개최된 해당 회의는 공동세션에서 앞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공유하고 소지역별로 나누어 해당 지역에서 무형문화유산과 교육을 통합하기 위한 우선순위에 대해 토의하도록 하였다. 참석자들은 토의를 통하여 이미 많은 국가들이 형식 및 비형식 교육에서 무형문화유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동체와의 네트워크 촉진 및 교사들의 역량 강화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해당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향후 계획으로 무형문화유산교육 통합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시범사업 운영,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교육 우수 사례집 발간 및 홍보 활동 강화, 무형문화유산 및 교육 분야 전문가 간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 방안 모색 등을 합의하였다.

3. 학교교육 시범사업과 교사용 지도서 발간

1)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교사용 지도서(초안) 제작

유네스코방콕사무소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및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은 상기 지역회의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무형문화유산과 함께 하는 교수학습(Teaching and Learning with Intangible Cultru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하였다.¹³⁾ 1차년도(2019년 하

12) 해당 회의는 2019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최로 동북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사무총장 및 대표들이 모여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로 한국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아태지역 소지역별 국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13) 해당 프로젝트는 2019년부터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재정적 지원에 더하여 유네스코국제이해교육원 및 중국의 쓰촨성 청두시 문화부로부터

반기-2020 상반기)에는 무형문화유산교육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 (Resource Kit) 초안을 마련하고, 2차년도(2020 하반기 - 2021 상반기)에는 해당 지도서 초안에 기반하여 몇몇 국가 초중등학교들에서 시범 수업을 진행하며, 3차년도(2021 하반기 - 2022 상반기)에는 시범수업 결과들을 반영하여 교사용 지도서를 완성하고 교사용 온라인 공개강좌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것이다.

2019년 하반기에 유네스코방콕사무소, 아태무형유산센터 및 국제이해교육원은 상기 프로젝트의 1차년도 사업으로 앞에서 소개한 지속 가능한 발전 관련 ‘아태지역 교사지침서’를 비롯하여 당시 유네스코와 유럽연합(EU) 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던 ‘살아있는 유산과 함께하는 교수학습’ 프로젝트 결과들을 참조하는 한편, 국제이해교육원이 주력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의 프레임워크를 반영하여 무형문화유산교육 관련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기로 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교실에서 배우는 무형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의 해당 지도서 초안에는, 먼저 1단계: 맥락의 이해, 2단계: 살아있는 유산 종목의 선택, 3단계: 대상 무형유산 표현에 대한 학습, 4단계: 수업계획 설계 및 무형유산을 활용한 수업 진행, 5단계: 수업 경험의 기록 및 공유, 6단계: 평가, 7단계: 전체 단계 반복 등 단계별 접근방식과 예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초안은 무형문화유산교육과 관련한 핵심 개념,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보 수집 방법, 무형문화유산과 세계시민교육 등의 설명 자료와 함께 수업지도안 양식 및 사례 등도 포함하고 있다(UNESCO, ICHCAP and APCEIU, 2020).

터 일부 재정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해당 교사용 지도서 초안은 한국어를 비롯하여 캄보디아어, 태국어, 러시아어 등 후술할 학교교육 시범사업 대상국의 언어들로 번역되어 참여 교사 및 학교 관계자들에게 제공되었다. 그리고 방콕사무소와 아태무형유산센터는 해당 지도서 초안을 가지고 2020년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무형유산 학교교육 협력사업 전문가 훈련 워크숍’을 실시하였다.¹⁴⁾ 아태지역 6개국에서 40여 명이 참석한 훈련 워크숍은 후술할 학교교육 시범사업을 전제로 개최되었다. 따라서 해당 워크숍에서는 학교교육에 무형문화유산을 통합하는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 설명 이외에도 시범사업과 관련한 국가별 워크숍 진행 방향 및 국가별 시범사업 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2)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학교교육 시범사업

상기 훈련 워크숍 이후 유네스코방콕사무소와 아태무형유산센터 및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은 2차년도 사업으로 무형문화유산 학교교육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시범사업은 유네스코의 카투만두, 알마티, 프놈펜 등의 지역사무소 등의 협조를 받아 네팔, 태국, 캄보디아, 한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학교에서 무형문화유산에 관한(about), 무형문화유산을 통한(thought), 무형문화유산과 함께하는(with) 다양한 무형문화유산교육 사례¹⁵⁾를 발굴하여 교사용 지도서 최종본

14) 해당 워크숍은 당초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15) ‘무형문화유산교육’이라고 하면 무형문화유산 관련 종목에 관하여 소개하는 교육이 일반적이나 이전의 지침서 및 해당 지도서는 무형문화유산

에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시범사업에서는 먼저 상기 유네스코지역사무소들과 상의하여 국가별 시범사업을 진행할 각국의 포컬포인트 및 퍼실리테이터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포컬포인트는 시범사업 관리를 위한 연락업무를 담당하고 퍼실리테이터는 자료 작성, 교사 훈련 등 시범사업 진행을 담당하였다. 포컬포인트로 네팔은 카투만두사무소, 태국은 방콕사무소, 캄보디아는 프놈펜사무소, 카자흐스탄은 알마티사무소, 키르기스스탄은 키르기스위원회가 각각 담당하였고 한국은 아태무형유산센터가 담당하였다. 퍼실리테이터는 국가별로 교육전문가 1인과 문화전문가 1인 등 복수로 선정하는 것을 권고하였다.¹⁶⁾

해당 시범사업은 각국이 자국의 사정에 따라 각자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캄보디아는 프놈펜 및 지방의 3개교, 카자흐스탄은 알마티 내 3개교, 키르기스스탄은 비슈케크 내 3개교, 네팔은 2개교, 태국은 5개교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한국은 국제이해교육원 및 퍼실리테이터들의 추천으로 지역, 학년 등을 고려하여 평소 유네스코 활동에 적극적인 학교 교사가 있는 신갈초등학교(용인), 월곡초등학교(광주), 오산중학교(서울), 근영중학교(전주) 등 4개 학교를 선정하였다. 이상 6개국의 총 21개 학교가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다.

에 관한 교육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을 소재로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을 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이 학습자에게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록 설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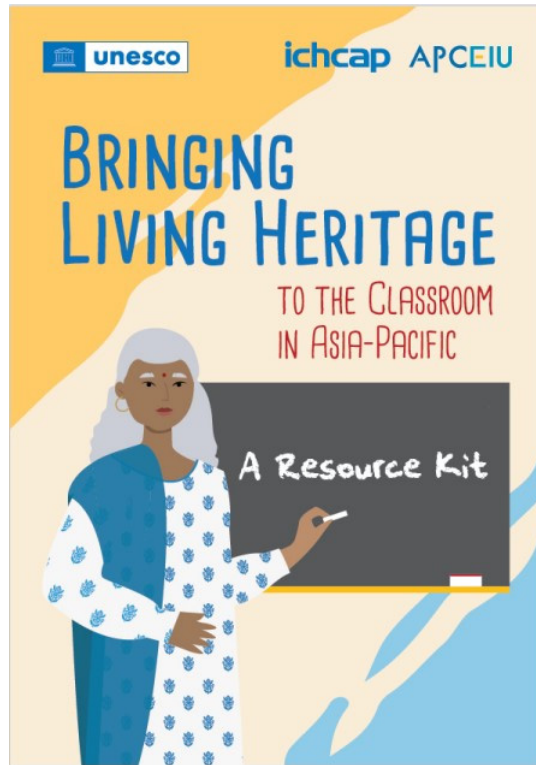
- 16) 한국의 경우는 교육전문가로 광주교육대학교 김다원 교수, 문화전문가로 강원대학교 한진수 교수가 국내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담당하였고,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팀, 국립무형유산원 문화유산진흥과, 아태무형유산센터 협력네트워크실의 중견 관계자들이 자문 역할을 담당하였다.

시범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는 상기 4개 학교 참여 교사들을 대상으로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훈련 워크숍의 일환으로 오리엔테이션 및 교사연구회를 4회 실시하고¹⁷⁾ 5월부터 6월까지 시범수업을 실시하였다. 신갈초등학교는 남사당놀이, 월곡초등학교는 연등회, 오산중학교는 봉산탈춤, 근영중학교는 김장문화를 소재로 시범수업을 진행하였다(박원모 외 편, 2022). 시범수업을 위해 마련된 교사들의 수업계획 및 학습교안들은 정리되어 영어로 번역되었으며 번역본은 방콕사무소로 보내져 후술할 ‘교사용 지도서(최종본)’ 작성을 위한 샘플 자료로 사용되었다. 한국 이외의 다른 5개국의 시범사업 참여 학교 수업 결과들도 모두 정리되어 상기 지도서 작성에 사례 등으로 활용되었다.

3) 무형문화유산교육 교사용 지도서의 발간

유네스코방콕사무소와 아태무형유산센터 및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은 이상과 같이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진행한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과 함께 하는 교수학습’ 프로젝트의 결과들을 정리하고 반영하여 무형문화유산 교사용 『지도서: 아태지역 교실에 살아있는 유산 가져오기(Bringing Living Heritage to the Classroom in

17) 아태무형유산센터는 2019년에 전주교육대학교에 의뢰하여 ‘무형문화유산 관련 초등융합교육과정 개발 연구’ 용역사업을 실시하였다. 해당 사업은 초등학교 음악, 미술, 체육, 국어, 사회과 교과에 반영되어 있는 무형문화유산 관련 내용들을 분석하고 상기 5개 교과와 관련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아태무형유산센터와 전주교육대학교는 해당 용역사업의 결과를 활용하여 김제에 있는 검산초등학교에서 봉산탈춤을 소재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와 관련 자료들은 교사연구회 교사들에게 제공되어 참조하도록 하였다(은혁기 외, 2019)



[그림 3] 지도서: 아태지역 교실에 살아있는 유산 가져오기

Asia-Pacific: A Resource Kit』를 유네스코 출판물로 발간하였다.¹⁸⁾ 해당 지도서는 앞에서 소개한 아태지역에서 수행된 이전의 프로젝트, 연구 및 설문 조사 등의 성과뿐만 아니라 최근의 유네스코 프로젝트의 하나인 ‘유럽 학교에서 살아있는 유산과 함께하는 교수학습’¹⁹⁾의

18) 본 논문은 해당 도서가 정식으로 발간되기 이전 편집본을 참고하여 초고가 작성되었으며 발간 이후 최종본의 내용을 확인하여 수정·보완되었음을 밝혀둔다. 해당 도서는 지난 2022년 8월 유네스코에서 ‘Bringing Living Heritage: to the Classroom in Asia-Pacific: A Resource Kit’이라고 하는 제목의 온라인판으로 발간되었으며, 현재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83135.locale=en>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경험도 참조하고 있다.

지도서의 본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살아있는 유산이란 무엇인가?’로 문화유산의 다양한 영역과 함께 무형문화유산의 개념 및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대해서 소개할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의 범주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은 해당 공동체의 정체성의 일부로 무형문화유산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여러 방법을 언급하면서 그 중 특히 형식 및 비형식 교육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결하는 것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UNESCO, ICHCAP and APCEIU 2022: 13-20).

제2장은 ‘왜 살아있는 유산을 가르치는가?’로 교육에서 무형문화유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피면서 학교에서 무형문화유산과 함께 하는 교수학습이 아이들의 공감, 비판적 사고, 협동과 같은 많은 21 세기의 덕목을 그들의 지역적 맥락에 기초하여 그들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계된 방식으로 습득하도록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예술 및 공예와 관련한 미술교육, 전통 경기 및 놀이와 관련한 체육·보건교육, 민요 및 전통악기와 관련한 음악교육, 지역 문화 및

19) ‘살아있는 유산과 함께 하는 교수학습: 유네스코협동학교네트워크와 함께하는 유네스코-유럽연합 시범사업’은 2018년 유럽문화유산의 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유네스코와 유럽연합이 2019년 1월부터 공동으로 시작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유럽을 위한 청소년 참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유럽 학교 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무형문화유산 학습으로 구성된 해당 프로젝트는 초·중등학교 기반의 교수학습에 살아있는 유산을 통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과물로는 기초조사 분석자료, 10개의 시범사업 요약 보고서와 3개의 관련 영상, 교사용 지도서 등이 있다.

시가와 관련한 문학교육 등 ‘살아있는 유산에 관한 교수학습’ 및 무형문화유산과 함께 하는 수학 및 과학 교수학습, 무형문화유산과 함께 하는 언어 및 문학 교수학습, 무형문화유산과 함께 하는 사회 및 역사 교과 관련 교수학습, 무형문화유산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등 ‘살아있는 유산과 함께하는 교수학습’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살아있는 유산과 함께 하는 교수학습의 이점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무형문화유산과 함께 하는 교육이 학습을 보다 맥락화하고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던가, 이론적 지식을 실제 생활과 연결하여 학습성과를 향상시킨다던가, 다양성을 증진하고 포용, 관용 및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한다던가, 성평등을 강화한다던가, 학생들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던가, 교사 간 협업 및 창의성을 함양한다던가,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기여한다던가, 세대 간 대화를 강화한다던가,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지역 방안을 탐색한다던가 하는 이점이 있다는 것을 열거하며 제시하고 있다 (UNESCO, ICHCAP and APCEIU 2022: 21-40).

제3장 ‘교육 우선순위와의 통합’에서는 무형문화유산교육이 다른 교육 우선순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무형문화유산교육은 교사, 학교 관리자 및 지역사회가 지역 유산을 학교 활동에 통합하여 학습을 보다 관련성 있고 매력적으로 만들고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무형문화유산교육을 세계시민교육(GCED),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사회정서학습(Socio-Emotional Learning, SEL) 및 모국어기반교육(Mother-Tongue Based Education, MTBE)과 같은 기타 교육 우선순위와 함께 통합하여 교육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UNESCO, ICHCAP and APCEIU 2022: 41-60).

제4장 ‘교사 지침 6단계 방안’은 교사가 살아있는 유산을 교실에 가져오기 위해 아이디어를 찾고 수업계획을 개발하고 결과를 가르치고 평가하는 데까지 따라갈 수 있는 6가지 실제 단계를 제안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교육을 위한 단계별 접근방식으로 앞에서 열거한 초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1단계는 ‘자신의 맥락을 이해하기’이고, 2단계는 ‘무형문화유산과 학교 수업의 연결’, 3단계는 ‘선택된 표현(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4단계는 ‘수업계획 설계 및 무형문화유산 학습’ 5단계는 ‘경험의 기록 및 공유’, 그리고 마지막 6단계는 평가 및 결과이다(UNESCO, ICHCAP and APCEIU 2022: 61-114).

제5장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은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구성원이 학교, 교사 및 학생과 협력하여 무형문화유산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형문화유산 정보 공유, 현존 기록 및 사물 제공, 학생 방문 조직 및 주최, 교사의 수업 개발 협력, 일일 교사, 사업 제안, 인사 및 조직 추천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UNESCO, ICHCAP and APCEIU 2022: 115-122).

제6장 ‘학교 관리자의 역할’은 학교장 및 관리자가 교사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 협력하여 무형문화유산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력자 및 조정자로서의 학교 관리, 교사의 전문성 개발 지원, 절차 및 행정적 요구 간편화, 지역사회와의 연결, 네트워크 및 제도적 지원 개발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UNESCO, ICHCAP and APCEIU 2022: 123-132).

제7장 ‘정책 결정자의 역할’에서는 정책 결정자의 무형문화유산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 계획을 위한 정책 설계 및 분석, 가능한 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 정책의 유연성과 적응성 허용, 교육 자료 공유 도구 및 메커니즘 설정 장려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UNESCO, ICHCAP and APCEIU 2022: 133-140).

제8장 ‘도구 및 자료’에는 무형문화유산교육을 위한 일련의 참고 자료들을 부록으로 첨부해 놓았다. 무형유산, 세계시민교육, 교육 실천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획득하기 위한 여러 관련 링크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유산이 무엇인가에 대한 수업계획 샘플, 학교 주제와 살아있는 유산 및 세계시민교육을 연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 교과별 수업계획 샘플, 무형문화유산 정보 수집 방법과 절차, 다문화 교실 환경에서의 살아있는 유산 교수, 질의 및 답변, 수업계획을 위한 워크시트 등이 있다(UNESCO, ICHCAP and APCEIU 2022: 141-224).

제9장 ‘교사들의 이야기’에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각국의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과 관련한 에세이를 작성하여 첨부하였다. 제9장은 처음 편집본에는 없던 것을 새롭게 최종본에 추가한 것이다(UNESCO, ICHCAP and APCEIU 2022: 225-248).

이상의 『지도서: 아태지역 교실에 살아있는 유산 가져오기』는 지난 수년간의 프로젝트 결과들이 반영되어 작성되었다. 앞에 각주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해당 도서는 온라인으로 발간되어 현재 유네스코 홈페이지 등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영문판으로 발행된 해당 도서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에서 한국어, 네덜어, 태국어, 크메르어, 러시아어 등 시범사업에 참여한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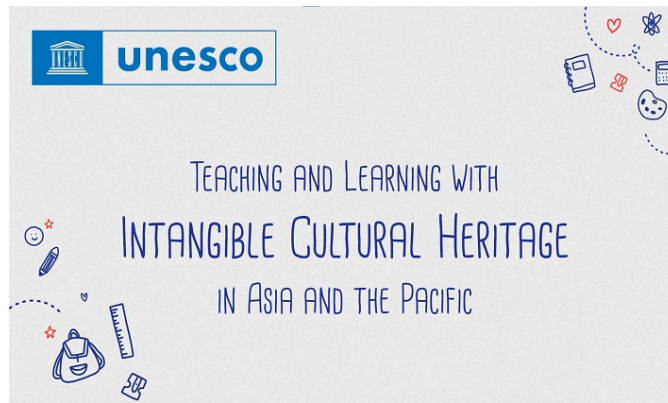
가 교사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국의 현지어로 번역할 예정이다. 또한, 영문판을 올해(2022년도) 연말까지 페이퍼백으로 인쇄해서 보급할 예정이다. 해당 도서는 각국에서 개최될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연수 등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IV. 교육 애니메이션 제작 및 교사용 온라인 공개강좌 개발

1. 무형문화유산교육 애니메이션 제작

유네스코방콕사무소와 아태무형유산센터 및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사들에 대한 집합교육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교사 및 학교 관리자 등의 훈련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첫 번째는 2021년도에 중국 청둥시 문화부의 지원을 받아 상기 지도서를 기반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 시리즈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과 함께 하는 교수학습’이다.

해당 애니메이션은 총 6개의 에피소드로 제작되었으며 한편의 길이는 3분 이내이다. 제1편은 ‘학교에서 살아있는 유산과 함께 하는 수업이란 무엇일까?’이고, 제2편은 ‘무형문화유산과 함께하는 수업이 왜 중요할까?’이며, 제3편은 ‘나는 교사: 어떻게 내 수업에서 살아있는 유산 종목을 통합할 수 있을까?’이고, 제4편은 ‘나는 학부모, 지역 사회 구성원: 어떻게 우리 학교가 살아있는 유산과 함께하는 수업을 계획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까?’이다. 그리고 제5편은 ‘나는 학교 관리자: 어떻게 교사들이 살아있는 유산으로 수업을 계획하는 것을 도



[그림 4] 애니메이션 시리즈: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과 함께 하는 교수학습

을 수 있을까?’이고, 마지막 제6편은 ‘나는 학생: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이다(유네스코방콕사무소, n.d.).

해당 애니메이션은 우선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과 함께 하는 교수학습’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 언어를 우선하여 영어, 크메르어, 한국어, 네팔어, 러시아어, 태국어, 라오스어 등으로 번역된 자막을 탑재해서 여러 언어 버전으로 제공하고 있다. 해당 애니메이션은 유네스코방콕사무소, 아태무형유산센터,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홈페이지 등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2. 교사용 온라인 공개강좌 개발 및 운영

유네스코방콕사무소와 아태무형유산센터 및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은 2021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발간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지도서: 아태지역 교실에 살아

있는 유산 가져오기』를 일선의 교사와 학교 관리자, 정책 결정자,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온라인 공개강좌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개발된 강좌명은 ‘아태지역 교실에 살아있는 유산 가져오기’이다.

해당 과정은 학교 수업 및 과외활동에 살아있는 유산을 통합하는 이유 및 방법과 관련하여 교사 및 교육과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요 자료와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수업과 활동은 학생들이 살아있는 유산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동시에 학습을 보다 상황에 맞게 적절하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듈별 강의는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각국의 퍼실리테이터 등이 분담하여 담당하였다.

해당 과정은 선택된 살아있는 유산 종목과 관련된 수업계획이나 학교 활동을 설계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해당 과정은 오리엔테이션과 총 5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모듈0]은 프로그램 소개로 강좌와 강사를 소개하고 있다. [모듈1]은 무형문화유산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으로 ‘학교에서 무형문화유산 교육하기’라고 하는 부제하에 ‘제1장 살아있는 유산이란 무엇인가?’, ‘제2장 학교에서의 무형문화유산교육의 이점’, ‘제3장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수업’, ‘제4장 무형문화유산과 함께 하는 수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듈2]는 무형문화유산교육의 첫 번째 단계 ‘맥락의 이해’로 ‘제1장 생활 속 무형문화유산 알아보기’, ‘제2장 학교에서의 무형문화유산: 언제, 어디서 해당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는가?’, ‘제3장 협력 과

트너 탐색: 학교, 지역사회 및 그 너머’, 그리고 ‘네팔 교사들의 이야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듈3]은 ‘종목 선택 및 심화학습’으로 두 번째 단계 ‘제1장 학교에서의 주제 연계를 위한 무형문화유산의 선택’과 세 번째 단계 ‘제2장 무형문화유산 종목에 대해 수집해야 할 정보는 무엇인가?’ 및 ‘제3장 어떻게 무형문화유산 종목에 대한 정보를 윤리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가?’, 그리고 ‘태국 교사 이야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듈4]는 ‘학습계획의 설계’로 네 번째 단계 ‘제1장 학습목표의 설정’, ‘제2장 교육학적 접근법 및 자료의 선택’ 및 ‘제3장 계획 및 수업 확정’과 다섯 번째 단계 ‘제4장 경험의 기록 및 공유’, 여섯 번째 단계 ‘제5장 평가 메카니즘 검토’, 그리고 ‘카자흐스탄 교사들의 이야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모듈5]는 ‘정규학습 활동 연계’로 ‘제1장 다문화 교실 환경에서의 무형문화유산 수업’, ‘제2장 사례연구(한국): 학교 교육과정 설계를 통한 무형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한국 교사들의 이야기’, ‘제3장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 ‘제4장 학교에서의 사회정서학습과 무형문화유산의 연계’, ‘제5장 학교에서의 세계시민교육과 무형문화유산의 연계’, ‘제6장 학교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과 무형문화유산의 연계’, ‘제7장 학교에서의 모국어교육과 무형문화유산의 연계’,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교사들의 이야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송현주, 2021b).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무형문화유산교육을 위한 교사용 공개강좌는 지난 2022년 4월 22일에 런칭 행사를 개최하고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해당 과정은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이 운영하고



[그림 5] 온라인 코스: 아태지역 교실에 살아있는 유산 가져오기

있는 ‘세계시민교육 온라인 캠퍼스’에서 제공되고 있다. 런칭 초기 해당 코스는 4월 22일부터 매주 한 개의 모듈씩을 업로드하면서 매주 금요일(15:00)에는 튜토리얼 세션을 개최하여 강사 및 수강자 간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강자들이 설계한 수업계획 및 활동에 대한 강사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무형문화유산교육 교사용 공개강좌는 우선 시범사업 참여 국가 언어로 번역되어 국가별로 교사 훈련 워크숍 등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계속해서 다른 아시아 지역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을 대상으로도 훈련 워크숍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3. 줄다리기 문화상자 교구 제작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과 함께 하는 교수학습’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교사 및 학교 관리자 등으로부터 무형

문화유산교육을 수행하면서 각종 회의를 통해 교구 부족에 대한 애로사항을 여러 차례 들어왔다. 따라서 아태무형유산센터는 그동안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 공동등재 등 다양한 줄다리기 진흥사업과 함께 수행해 오던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과 함께 2021년도에 무형문화유산교육을 위한 ‘줄다리기 문화상자’ 제작을 시도하였다. ‘줄다리기 문화상자’는 기존의 국립민속박물관 및 국립중앙박물관의 어린이 박물관에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문화꾸러미 및 교육상자 등의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제작되었다.

줄다리기 문화상자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줄다리기라고 하는 하나의 학습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다양한 여러 나라의 줄다리기 문화를 학습자에게 교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서 학습자가 아태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 학습의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연령으로 정했다. 해당 연령대에서는 학교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지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였다. 그리고 줄다리기 문화상자는 교실 환경에서 교사가 혼자서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4-6개 그룹을 만들어 그룹별 상자를 가지고 수업을 할 수도 있는 크기로 제작하였다.

줄다리기 문화상자 제작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이 분담하였는데,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은 전체적인 아웃라인과 해외 실물자료의 구입, 모형의 제작 등을 담당하였고, 개발의 실무와 자문 등은 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 담당하였다. 개발 구상 회의에서 몇 가지 기본 전제를 설정했다. 첫째 각국의 줄다리기에 대한 소개와 자료는 균형있게 배분하고자 하였다. 둘째 전체적인 이



[그림 6] 줄다리기 문화상자:
당기며 놀아보자! 모두 함께 줄다리기

야기는 줄다리기의 시기나 모습은 다르지만 공동체의 화합과 풍요를 기원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리고 셋째 시청각, 실내 및 야외 체험교육과 연계하고자 하였다(고대영, 2022: 73-97).

줄다리기 문화상자에는 캄보디아, 필리핀, 한국, 베트남 내 여러 지역의 줄다리기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실물 자료와 다양한 활동지가 들어있는 학습자료 봉투, 줄다리기 관련 영상과 사진들이 담긴 태블릿 PC와 USB가 있다. 더하여 줄다리기 문화상자의 이용자를 위한 문화상자 사용설명서와 실물 자료 설명 카드 그리고 문화상자를 활용해 수업을 구성하고자 하는 교사들을 위한 샘플 수업안도 함께 준비했다(ICH PLUS, 2022).

줄다리기 문화상자는 40개 제작되어 줄다리기 보존단체 및 국내 문화 관련 각종 기관에 배포되어 활용되고 있다. 학교나 현장의 교육 지원을 위해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 이수자로 하여금 해당 문화상

자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훈련하였다. 줄다리기 문화상자는 완성된 상자라기 보다 계속해서 채워넣어야 할,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문화상자로 제작되었다.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유네스코방콕사무소와 아태무형유산센터 및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은 유네스코가 조직 혁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 및 교육 부문 간 통합적 접근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지난 2019년도부터 지역 내 무형문화유산을 학교교육과 통합하기 위한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과 함께 하는 교수학습’이라고 하는 일련의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해당 프로젝트는 이전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 정부의 신탁기금으로 유네스코방콕사무소가 진행한 ‘아태지역 교육자 지속가능발전교육 강화와 무형문화유산 진흥’ 사업의 결과로 팔라우,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대상의 시범사업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무형유산 학습: 아태지역 교사지침서’ 발간 경험이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과 함께 하는 교수학습’ 프로젝트는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는 이전의 사업을 보완하고 보다 강화하는 프로젝트였다고도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과 함께 하는 교수학습 프로젝트는 2019년에 실시한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교수학습 설문조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유네스코방콕사무소와 아태무형유산센터는 2019년 7월부터 4개월간에 걸쳐서 아태지역 21개 국가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 소속 학교

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2019년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주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무형문화유산교육 강화를 위한 아태지역 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의 무형문화유산교육 현황과 당면과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유네스코방콕사무소와 아태무형유산센터 및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은 2020년부터 무형문화유산교육 교사용 지도서 초안을 작성하고 캄보디아, 네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태국, 한국 등 6개 국가를 대상으로 무형유산 학교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시범사업 결과를 정리하여 교사용 『지도서: 아태지역 교실에 살아있는 유산 가져오기』 발간에 반영하고 해당 지도서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시리즈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과 함께 하는 교수학습’ 및 교사용 공개강좌 ‘아태지역 교실에 살아있는 유산 가져오기’를 개발하였다.

무형유산 전문가들과 교육 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무형문화유산을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일방이 갖은 약점을 보완하여 서로 간의 시너지를 발휘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문 간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유산교육을 학교교육에 통합하는 데에는 아직 여러 가지 과제가 산재해 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서는 이상과 같은 일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현재 당면한 과제와 현장의 요구를 정리하면서 본 논문을 맺고자 한다.

첫째, 무형문화유산교육을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것은 교사들이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관련 플랫폼 내지는 저장소를 구축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교사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 중 하나는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정보 및 자료의 부족이었다. 인터넷 등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습득하더라도 재가공하는 등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원활한 무형문화유산교육을 위해서는 수업에 적합하도록 가공된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보 및 자료들을 탑재한 다양한 플랫폼의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교사들이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어렵듯이 알고는 있었으나 그 개념에 대해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교사들에 대한 다양한 워크숍 등을 통하여 무형문화유산을 교육에 통합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방콕사무소와 아태무형유산센터 및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이 함께 개발한 교사용 온라인 공개강좌도 이러한 필요에 공감하여 개발된 것이다. 뿐만아니라 유네스코방콕사무소와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국가를 우선으로 하여 국가 단위의 교사 역량 강화 워크숍도 계획하고 있다.

셋째, 교사용 지도서 등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무형문화유산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연계 등 다양한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하여 학교에서의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 교실 현장에서 교사들이 생각보다 이들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보다 쉽게 교사들이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인력 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활발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무형문화유산을 교육에 통합하기 위한 새로운 교과목, 접근법, 그리고 교육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단기적으

로 각국은 자국의 교육과정 분석을 수행하여 무형문화유산의 통합 가능한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전문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실무자, 지역 전문가, 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조직하고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강조한 것 중 하나는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무형문화유산교육이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교사 및 학교 관리자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정책 결정자들의 이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시범사업에서 행한 국가별 훈련 워크숍에 가능한 한 자국의 정책 결정자를 참여시키도록 권고하였다.

참고문헌

- 고대영(2022). 무형유산을 활용한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줄다리기 문화 상자를 중심으로. **무형유산** 17. 국립무형유산원. 73-97.
- 박원모(2022). 유네스코의 교육 및 문화 부문 간 협력을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활동 사례: 아태지역 무형유산 학교교육 협력사업 등을 중심으로. **무형유산학회 2022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1-52.
- 박원모, 김민정 편(2022). 2021 **무형유산 학교 교육 한국 시범수업 사례집: 교실에서 만나는 무형유산**. 전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 뱅크스, 제임스, 체리 뱅크스 편(2011). **다문화교육 현안과 전망** (제7판). 차운경, 부향숙, 윤용경(옮김). 서울: 박학사. [James A. Banks & Cherry A. McGee Banks, eds.(2010).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and Perspectives* (7th ed.) Hoboken, N. J.: Wiley]

- 송현주(2021b). 2021년 무형유산 교수학습 자료개발 사업 결과보고서. 전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 은혁기, 박상준, 서현석, 신기철, 이상규, 장지성, 이연수(2019). **무형문화유산 관련 초등융합교육과정 개발 연구**. 전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 UNESCO(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ris: UNESCO.
- _____(2015a). *Final Narrative Report* (JFIT585RAS1004). Bangkok: UNESCO Bangkok Office.
- _____(2015b). *Learning wit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a Sustainable Future: Guidelines for Educators in the Aisa-Pacific Region*. Bangkok: UNESCO Bangkok Office.
- _____(2017a). *Integra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Education: Intersectional meeting with Education Institutes and Programmes* (Summary Report). Paris: UNESCO.
- _____(2017b). *Item 5.b of the Provisional Agenda: Report by the Secretariat on its activities. 12th session of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ris: UNESCO.
- _____(2017c). *Item 6 of the Provisional Agenda: Voluntary supplementary contributions to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und. 12th session of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ris: UNESCO.
- _____(2019). *Survey on Teaching and Learning With, Through and Abou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angkok: UNESCO Bangkok Office.
- UNESCO, ICHCAP and APCEIU(2020). *Step by Step: Integrating Living Heritage in School-based Education* (draft). Bangkok: UNESCO Bangkok Office.
- _____(2022a). *Medium-Term Strategy 2022-2029 (41C/4)*. Paris: UNESCO.
- _____(2022b). *2022-2025 Approved Programme and Budget: First biennium 2022-2023 (41C/5)*. Paris: UNESCO.
- _____(2022c). *Basic Texts of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ris: Living Heritage Sector.
- UNESCO and ICHCAP(2021). *Teaching and Learning With and Abou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Asia and the Pacific. Paris: UNESCO.

UNESCO, ICHCAP and APCEIU(2022). *Bringing Living Heritage to the Classroom in Asia-Pacific: A Resource Kit*. Paris: UNESCO.

<자료>

유네스코방콕사무소. 2022. 4. 12 <https://bangkok.unesco.org/content/animation-series-teaching-and-learning-intangible-cultural-heritage-asia-and-pacific>로부터 검색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2. 4. 12 <https://www.unesco.or.kr/etc/search/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부터> 검색됨.

ICH PLUS. 2022. 1. 6 <https://www.unesco-ichcap.org/상자-속-작은-줄다리기-세계로-여러분을-초대합니다/?lang=ko>로부터 검색됨.

UNESCO. 2022. 4. 12 <https://ich.unesco.org/en/side-events-00899>로부터 검색됨.

Abstract

Education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Cooperation between Culture and Education Sectors: Focusing on the Projects for School Educ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Park, Weonmo

(Director of Cooperation and Networking Office, ICHCAP)

Recently, UNESCO has been strengthening a multidimensional cooperation between culture and education. UNESCO is supporting member states expand to partnerships between learning institutions and ICH communities and to conduct new learning methods, pilot projects and related research on the enhanced learning outcomes and benefits of cultural diversity based on synergy between culture and education. Under such policy change of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Education’ was adopted as a priority in implementation of the 2003 Convention at the 12th Intergovernmental Committee Meeting of 2003 Convention held in Jeju in 2017. At the meeting, the Committee emphasized the capacity building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education’ and partnerships with UNESCO education programs and institutions to strengthen transmission through 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With UNESCO’s emphasis on crosssectoral cooperation, ICHCAP, supported by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cooperating with the UNESCO Bangkok office and APCEIU since 2019. “Teaching and Learning wit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Asia-Pacific”

project is underway with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project included a “Survey on Teaching and Learning wit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Asia-Pacific” and “Regional Meeting for Strengthening the Us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Education in the Asia-Pacific” between 2019-2020. And a guidebook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ducation for teachers was drafted and a pilot projects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chool education was operated between 2020 and 2021. From 2021 to 2022, Bringing Living Heritage to the Classrooms in Asia-Pacific: A Resource Kit was published, the animation series “Teaching and Learning wit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Asia and the Pacific” and the Massive Open Online Courses (MOOC) “Bringing Living Heritage to the Classroom in Asia-Pacific” for teachers were developed.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ducation in classrooms by introducing a series of progress of activities and details of cooperation projects conducted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addition, I would like to understand the views of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teachers, school managers, and policymakers, rais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pilot project, and to discuss the tasks for revitalizing the educ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schools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the future.

Key words :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Integrated Education, Education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ESD)

투고신청일: 2022. 10. 26

심사수정일: 2022. 12. 21

게재확정일: 2022. 12. 29